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신년호 | 2019년 1월 17일

발행인 박권수 회장
 편집인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 정부의 카카오 카풀 강행에 맞서 지난 9일 오후 6시 3분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분신을 시도한 고 임정남 님이 결국 숨을 거두자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사진 중앙)이 시신이 안치된 한강 성심병원에서 택시 관련 4개 단체와 공동으로 긴급 인터뷰를 하고 있다.

‘택시기사여 다 일어나라!’
 이 말을 남기고 1월 9일 6시3분경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분신한 경기도 수원시 개인택시 임정남 열사께서 10일 오전 5시50분경 결국 사망하였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임정남 열사는 분신하기 이전에 여·야 정당이 카풀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청와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고 평소에 주장하였다.

그에 앞서 고 최우기 택시 노동자님은 지난 12월 10일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며 여당 대표와 유명 뉴스 앵커에게 택시 노동자의 절절한 현실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분신·사망했다.
 정부의 불법 자가용 유사운송허용 정책이 결국 기사님 두 분의 분신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

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불법 자가용 유사운송 행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버린 고 최우기 열사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지난 12월 20일 국회 앞에서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마포대교를 거쳐功德동 로터리까지 가두 행진을 벌여 고 최우기 열사님을 추모했다.

지난 12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국회 앞에서는 무기한 천막농성도 벌이고 있다.
 ◇ 불법 카풀 부당함 호소, 정부·국회 무시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지난 해 10월 4일과 11일에 성남 관교에 위치한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대기업의 카풀 진입의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다.

《故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의 고귀한 희생에 전국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시니어 세대를 위하여!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등 도로교통법 개정(19.01.01)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등 주기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 단축

기존 5년 → 3년

교통안전교육 이수

*본인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 지정된 날짜와 시간을 사전예약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교육예약/이수 확인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선택
- 개인정보 수집동의
- 교육장소·날짜·시간 선택
- 개인정보 입력하면 끝!

전화 접수 방법

- 교통안전교육장 전화번호

서울	☎ (02)3498-2061	☎ (02)3498-2062
경기	☎ (031)8006-1122	☎ (031)38006-1124
인천	☎ (032)830-6167	☎ (032)830-6172
부산	☎ (051)629-9171	☎ (051)629-9107
대구	☎ (053)659-6169	☎ (053)659-9107
경북	☎ (054)478-6161	☎ (054)478-6766
경남	☎ (055)270-6131	☎ (055)270-6132
강원	☎ (033)250-9151	☎ (033)652-7950
충북	☎ (043)717-7174	☎ (043)717-7175
충남	☎ (042)520-0172	☎ (042)520-0175
전북	☎ (063)281-6143	☎ (063)281-6145
전남	☎ (062)530-6187	☎ (062)530-6184
제주	☎ (064)710-9143	☎ (064)710-9147

또한 10월 18일과 11월 22일에는 광화문과 국회 앞에 수만 택시 관계자들이 모여 불법 카풀 앱 금지를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택시 생존권 보장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불법 자가용 카풀근절, 택시 생존권 보장, 공공성 강화 촉구, 카풀금지 여객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 등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그 결과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은 외면받는 택시 업계의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 그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 ‘자가용 유상 운송 금지해달라’는 정상적인 요구

카풀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여객법 제81조’ 조항의 해석이 분명치 않다는데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대기업 카카오는 바로 이 점을 노려 카풀을 공유경제로 포장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

택시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간단하다.

카카오가 모든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대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 절약 취지에서 비롯된 자동차 함께 타기라는 카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자가용 유상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담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카풀 관련 법률 3건은 상정도 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기피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싸움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정치인 다운 발상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 불법 카풀 무산될 때 까지 투쟁할 것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은 유서에서 ‘카풀이 무산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카풀이 저지되는 날 까지 자신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불법 카풀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린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의 호소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개인택시사업자를 포함한 30만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백만 택시 가족은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정부와 국회가 불법적인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를 금지시키고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그 날 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글·전국개인택시연합회 기획부장 김도길〉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고 임정남 열사님 분향소.



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사진 중앙 왼쪽)이 고 임정남 열사 분향소 옆에 마련된 천막농성장에서 국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 갑, 사진 중앙 오른쪽)과 정부의 카풀 정책 저지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



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택시 4개 단체장들이 10일 청와대를 향의 방문하고 고 임정남 열사님 분신 사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부의 카풀 허용 시도에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10일 분신, 사망한 고 최우기 열사님의 노제가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진행됐다.



제2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충북조합 한중석 이사장, 광주조합 이길로 이사장, 제주조합 전영배 이사장이 사발 투쟁하고 있다.



제3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이후 마포대교를 거쳐 공덕동 로터리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는 모습.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카풀 허용 명분 '공유경제'는 망령, 택시 넘어 모든 국민 생존권 위협할 것!!

존경하는 전국 16만여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탈도 많았던 무술년 개띠 해가 저물고 황금 돼지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돼지는 복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돼지가 황금을 만나 더 많은 재물과 복이 따른다는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띠입니다.

올해는 사업자 여러분 모두의 원하시는 바가 돼지가 황금을 만난 기세 처럼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추위에 거리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우리 조합원님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 칸이 메어집니다.

우리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카풀'이라는 괴물 앞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고 현실을 떠올리면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16만 개인택시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회의 대표로써 카풀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죄송함과 자책감은 너무도 큼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택시업계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박탈하려는 세력과 일부언론에 의연히 맞서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정부가 주장하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어디에 있는가?

우리 택시 업계는 불법으로 자가용 유사 운송 행위를 허용하려는 정부 그리고 카풀에 편승해 제 밥그릇 채우기에 급급한 대기업 카카오의 행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3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여객법 즉각 개정을 호소하고 있는 박권수 연합회장.

출되어 있습니다.

연론도 매우 편파적인 여론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단절의 책임을 택시업계에 전가 하는 비상식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야만적인 보도 행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대규모 집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미사여구만 늘어 놓은 체 눈 하나 깜짝 않고 여론을 호도하고 밀어붙이고 있어 업계 종사자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언론의 횡포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일방적이었으면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은 스스로가 삶을 포기하며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고 임정남 열사님은 지난 9일 분신에 앞서 동료 기사들에게 대기업 카카오가 영세한 기사들의 수익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택시 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난 해 12월 10일,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며 분신을 선택한 고 최우기 열사님은 여당 대표 및 유명 앵커에게 남긴 유서에서 '카풀이 무산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해 달라', '카풀이 저지되는 날까지 나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택시를 외면하고 우리 택시 기사들의 알박한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카카오의 배를 불리려는 행태를 멈추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언제 올까요? 신산업과 구산업의 충돌은 자명합니다.

우리 업계도 산업과 환경의 변화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이라는 이유로 기존 산업을 죽이면서까지 정책적으로 육성하려 한다면 장차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공정하게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불법 자가용 유사 운행을 허용하고 전국 30만 택시 사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카카오의 배를 채우려는 행태는 결코 택시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장차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택시 업계는 비단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차원을 뛰어 넘어 현 정부의 잘못되고 왜곡된 4차 산업



▲ 박권수 회장이 고 임정남 열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생존권 박탈하려는 세력에 의연히 맞설 터!

혁명과 공유경제의 망령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산업과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결단코 저지하고 막아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사업자 여러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

우리 연합회와 임·직원은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조합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택시업계를 억누르려는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난 해 우리 연합회는 다양한 실적을 이끌어냈습니다.

택시 운송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특별 적용기한이 지난 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택시에서 사용되는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적용됩니다.

관세법 71조 개정으로 LPG 부탄 연료 할당관세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어 2%가 적용됩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어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적용됩니다.

개인택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중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지방세법 역시 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내간이 과세자에 해당되는 개인택시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세 면제 상한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서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개인택시 사업자에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가 평균 약 1.3%에서 약 0.8%로 인하됐고 연간 약 150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업자 여러분! 우리 택시 업계는 여전히 불법 자가용 유사 운송 허용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려 있지만 연합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론을 향해 그 부당함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는데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여러분의 수익과 복지 향상 그리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수요를 발굴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 과정에는 항상 뜨거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16개 이사장님과 16만 4000여 조합원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해년 새해 사업자님 모든 가정이 두루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원 합니다.

오, 임정남 열사여! 최우기 열사여!

정녕 밝은 빛 한번 못보시고 가시나이까...

‘4차 산업 혁명·공유 경제’라는 ‘미명’하에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 행위 즉 ‘카풀’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아집’이 택시 사업자와 근로자를 연이어 안타까운 ‘분신’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6시 3분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인 임정남 열사가 분신하며 불법 카풀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호소했다.

고 임정남 열사는 차량 화재에 의한 분신으로 온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10일 오전 5시50분 운명을 달리했다.

고 임정남 열사는 분신 직전 동료 택시 기사들에게

육성으로 유서를 남겼는데 택시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카풀의 위험성과 더불어 일반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호소하는 절절한 내용이 담겨 보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10일에는 법인택시인 서울 한석교통 노동조합 소속, 최우기 열사가 국회 인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시너를 밟고 분신했다.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은 택시 관련 단체들이 연이어 개최한 카카오톡 카풀 반대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가 남긴 유서에서는 정부의 카풀 정책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있으며 카풀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궁극에는 대기업인 카카오가 요금을 인상해 교통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문제점도 적시하고 있다.

고 최우기 열사가 분신을 시도한 택시안에 2통의 유서를 남겼는데 각각의 유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손석희 JTBC 사장을 향하고 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고 임정남 열사와 최우기 열사가 남긴 유언과 유서 내용을 소개하며 16만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고인의 유지를 반드시 받들 것을 맹세한다.

- 개인택시 고 임정남 열사님의 마지막 외침(유언 녹취 주요 내용중) ... 택시 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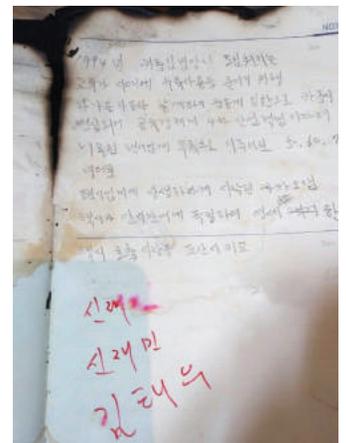
60대 택시기사 어디로
대리업종도 잠식한 카카오
당초 택시와 상생약속 했으나
지금은 콜비챙기고
카드결제
대리기사 수수료 20% 착취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가?
비정규직 문제 말만 앞세우는...
국민과 대화소통은 소홀히하고
북한에만 정신을 쏟고있다

국민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나는 더 이상 당신들 밑에서 살기 싫다
저 멀리서 지켜보겠다

적폐청산
국민들을 다시 돌아보라
하루아침에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택시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
교통을 마비시키자



▲ 고 임정남 열사님이 분신하면서 남긴 노트 메모장

- 한석교통 고 최우기 열사님 유서에서는 ...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1. 카풀의 취지 :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출근 시간에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이웃끼리 같이 차량을 이용하라고 허용한 것임.
2. 하지만 최근 카카오에서는 불법적인 카풀을 시행하여 사업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카풀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
3. 카풀의 요금은 택시 요금의 70~80% 수준으로

4.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졌다?
카풀의 취지와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다 출퇴근시간 07~09시 러시아워 때 차량 속도를 올려보자고 정한 것인데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5. 현재 서울시내 법인 택시 255개 회사의 가동률을 보면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택시 수입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월~목요일 사이에 시내(강남)에 나가봐라. 새벽 1시가 넘어가면 빈차들끼린 택시가 줄을 서 있다.

6. 택시도 물론 반성을 할 부분이 있다. 승차 거부에 불친철 공감하는 부분이다.
왜 그럴까?
택시는 12시간 근무해도 5시간만 근무로 인정해 준다.
최저시급을 맞추려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정부에서는 노사 협약 사항이라고 묵인해주는 점과 특수 업종으로 분류를 해놓고 장시간 근무해도 제대로 보수를 못 받아도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7. 전국의 모든 택시 노동자들이여 불같이 일어나서 이번 기회에 택시 근로자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이 한 몸 내던져 봅니다.
8.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바랍니다
9. 전택노련, 한국노총 카풀이 저지되는 날까지 나의 시신을 카카오톡 본사 앞에 안치해 주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0일
한석교통노동조합 소속 최우기

〈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불법 자가용 카풀을 금지 시켜 줄 것을 간청 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고 최우기 열사가 서거한지 얼마 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1월 9일 오후 6시경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자가용 카풀 반대를 위하여 분신, 사망 하신 고 임정남 열사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택시 30 만 종사자는 고통스럽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고 임정남 열사는 택시업계가 개최 해온 제3차 택시생존권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국회와 정부의 카풀 대책에 대한 무능함을 규탄 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판단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3·제 4의 사태가 발생 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힘없고 열악한 택시 현실을 통감 하시고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을 즉각 중단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 01. 10.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 국 민 주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성명서]

카풀 금지를 위한 법률개정을 즉각 요청 한다!!

지난 1월 9일 오후 6시 3분경 서울 광화문 인근도로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를 위하여 분신한 경기도 수원시 개인택시 임정남 열사가 금일 오전에 사망 하였다. 작년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한 고 최우기 열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30일 만에 임정남 열사의 비보에 망연자실 할 뿐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 할 수 없다. 임정남 열사는 분신하기 이전에 여·야 정당이 카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면 청와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평소에 주장하였다. 임정남 열사는 제3차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및 최우기 열사 추모집회가 끝난 직후인 12월 20일부터 분향소를 손수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2019년 1월 9일까지 이어 오면서 카풀의 부당성을 호소하였다. 또한 택시 4개 단체가 개최한 제1차~3차에 이르기까지 택시생존권사수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한 택시생존권 사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왔다. 힘없고 권력이 없는 택시종사자의 외침을 저버린 문재인정부 및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앞으로 제2, 제3의 임정남 열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택시업계의 자가용 카풀을 금지 시켜 전국 택시 30만 종사자는 물론 100만 택시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동안 택시 4단체는 카카오 카풀 등 카풀 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택시업계의 현실을 직시하여 불법자가용 카풀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여 왔으나 문재인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청와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아니하고, 카풀업계 로비력에 휘둘려 힘과 권력이 없는 택시종사자들을 길거리로 나가도록 종용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 플러스 등 카풀업계는 카풀불법영업을 즉시 중단하라!!

카카오 카풀, 플러스 등은 여론을 등에 업고 4차산업 운운하며, 대기업의 골목상권을 착취하는 여론몰이에 집중하지 말고 각종 규제와 악 조건 속에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온 택시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카카오 카풀 등 카풀 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석하여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택시업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경우 이에 따른 불상사는 카풀업계와 정부 여·야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

100만 택시가족이 요구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불법 카풀영업 금지하라!

카카오는 택시와의 상생 운운하지 말고 카풀앱 서비스 즉각 중단하라!

2019. 01. 10.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 국 민 주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도 조합 이사장의 기해년 신년사

황금 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 새 해가 밝았다.

전국 16만여 조합원들의 업권 보호를 위해 연합회 산하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새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신년사를 통해 들여다 봤다.

신년사에서 드러난 통일된 의견은 정부의 불법 자가용 카풀 허용을 반드시 저지하여 우리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지켜야만 되겠다는 각오이다.

전국 시·도별 순으로 조합 이사장의 신년 메시지를 전제한다.

(편집자 주)

연합회신문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www.개인택시.org)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준하신년

전국 16만 개인택시사업자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및 시·도 조합 이사장 배상 -



서울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영수 직무대행

2019 기해년에는 '카카오 카풀앱'을 포함한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택시시장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전국 16만 개인택시 모두가 '카카오콜'을 탈퇴해서 손님들이 '카카오콜'을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 조합에서는 작년 연말에 수일간 최강한파가 불어닥치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으로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인 두명의 여성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불법카풀 전면 저지를 외치며 13일 동안 단식투쟁을 이어가다 건강이 악화되어 대림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다행히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퇴원하였습니다. 이 두 명의 여성조합원은 우리 16만 개인택시동지 모두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카카오 불법카풀'을 저지해 달라는 유언을 남긴 故 임정남·최우기 열사를 포함하여 이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카카오콜'을 거부하여 불법 카풀 영업을 원천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2019 기해년 새해에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카카오 카풀앱'등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들이 반드시 우리 택시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호덕 이사장

지난 해, 우리 택시업계는 예기치 못한 카풀 사태로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3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불법 카풀을 즉각 근절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끝내 이를 방치하다가 결국 최우기 열사님에 이어 임정남 열사님마저 홀로 카풀에 항거하다 분신해 사망하는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처사는 그간 온갖 홀대와 무시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잘 되겠다" 하는 기대로 말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100만 택시가족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짓밟는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카풀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정창기 이사장

기해년 새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대구개인택시 조합은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한 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충전소 2개소를 확장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 조합원 1만 여명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많은 이익을 가져주는 등 항상 발전하는 대구개인택시조합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광역시 조합은 정부의 불법 카풀 서비스 근절을 위해 가장 앞장서고 협동조합 택시 등 우리의 업권을 침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올해에도 더욱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해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승일 이사장

지난 무술년 한해 어려운 경영여건과 악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않고 불철주야 시민의 발이되어 교통의 한 축이 되어주신 전국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 4차 혁명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는 카풀 허용은 100만 택시가족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택시 산업을 붕괴시키며, 국가의 교통체계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단결된 힘으로 카풀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정부와 끝까지 싸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택시 업계를 살리고 생존권을 반드시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새해에는 카풀이 해결되고 택시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런 직업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해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길로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기해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조합원 한분, 한분 모든 분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택시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불법카풀 저지를 위해 임정남·최우기 열사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임정남·최우기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항1호가 삭제되는 그날까지 택시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은 계속해 갈 것입니다. 우리 택시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우리 택시가족 모두가 단결하여 우리 업계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해 나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파이팅!!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백형선 이사장

존경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황금돼지의 복된 기운이 항상 증만하시고 뜨겁게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처럼 열정이 넘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오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금의 우리 업계는 우리의 업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카카오 불법카풀 허용 시도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택시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함께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극복 할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올해에도 전 조합원이 합심하여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생산적인 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에는 온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어봅니다.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영식 이사장

지난한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불법 카풀을 몰아내기 위해 개최했던 3차례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신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故최우기 열사의 희생으로 모두가 아픈 마음을 달래며 기해년을 맞이하였으나, 또다시 경기조합원인신故임정남 열사의 비보에 이사장으로서 분노와 울분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개인택시조합원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현실과 타협하여 우리 업권을 침탈하려는 카카오편을 받는 것은故최우기열사와故임정남 열사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도록 불법카풀을 방관하지 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어려운 현실에서 경기조합 임직원들은 물론 전국 100만 택시가족 모두가 불법카풀로부터 택시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2019년에는 모두가 합심하여 생존권 사수와 권익증진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주원 이사장

존경하는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불법여객운송으로 암울해진 우리 마음의 해는 떠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착잡하기 이를 바 없습니다.

공유경제 육성이란 이름으로 불법을 합법화 하려는 정부와 거대자본의 논리로 이를 기회로 삼는 카풀업체들의 행태에 우리 택시 가족들은 참을수 없는 분노와 허탈함마저 느낍니다.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택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올해는 전국 100만 택시 가족 모두가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으로 척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정부여당과 카풀 업체들에게 즉각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이 힘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으니 새해에도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한종석 이사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황금 돼지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충북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의 업권 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열심히 함께 달려오신 전국개인택시 조합원 가족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카카오의 불법 자가용 여객운송행위 저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위하여 총력 대처하며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와 정부는 카카오의 불법 자가용 여객운송행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업권보호는 물론 국회에 입법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하루빨리 상정이 되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충북개인택시 조합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귀 기울여 권익보호는 물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충북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뜻하신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축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청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홍선기 이사장

사랑하는 16만 전국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주는 2019년 기해년의 힘찬 새 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일들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택시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불법 카풀 근거(여객법 제81조제1항) 삭제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합회장님과 시·도이사장들 그리고 16만 개인택시조합원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의 불법 카풀을 저지하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며 분신,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 열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박정기 이사장

기해년 새해 새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지난해를 되새기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 안정과 화합 속에 기쁨으로 넘쳐나시길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개인택시 위상을 제고하고, 택시선진화 및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택시업종 구분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농 통합도시 및 농어촌에 맞는 택시 정책을 개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개인택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불법 카풀 허용이 우리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것에 저를 포함한 모든 조합 임직원들이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는 여명을 밝히는 태양처럼 개인택시 가족이 하시는 일마다 날로 번창하시고 작은 선행에도 감동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안전운행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라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여근하 이사장

우리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카풀에 맞서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3번에 걸쳐 대규모 집회와 천막 농성, 여·야 대표 회동 등을 통해 적극 저지 운동을 펼쳤지만 카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더욱이故 임정남·최우기 열사의 안타까운 희생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함께 그 뜻을 반드시 이어 나가야 할 천명을 주었습니다.

카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며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임에도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를 방조, 묵인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제분야는 교통사고 및 손해율 증가로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지역 조합원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각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생존권 사수와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한해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광호 이사장

조합원 여러분 황금돼지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신 조합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은 우리 택시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불법 카풀법 저지를 위해 전국 택시사업자들이 한마음으로 투쟁하여 왔으며 그 과정 중 소중한 2명의 우리 동료를 잃는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호소에도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한채 방관하고 있기에 우리는 택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카풀법 저지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끝까지 투쟁하고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개인택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조합원여러분들께서 편안하고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는 조합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상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정곤 이사장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작년에 마무리 하지 못한 일로 안타까움이 크지만 새해에는 결단코 빠른 시일 내에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우리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카풀영업에 대하여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막아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카카오톡의 탈퇴 등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법인소속 최우기열사님의 분신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경기도 수원에 소속되어 있는 임정남열사님의 소중한 생명이 카풀저지를 위하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 숭고한 뜻을 기필코 이루어 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끝까지 투쟁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더 어려워 지는 현실에서 저를 위시한 우리조합 임.직원들은 조합원 여러분의 업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전영배 이사장

존경하는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은 풍요와 큰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택시업계는 공급과다 및 이용수요 감소의 상황에서 최근에는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카풀법 등을 이용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추진하는 등 우리 택시가족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업계의 단합만이 우리의 업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개인택시 가족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업계의 현안문제인 카풀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여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고 올해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우리 택시업계가 더욱 활력이 넘치는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 민주평화연구원 주최 국회토론회 ◇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민주평화연구원은 지난 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사회로 진행됐고 정동영 대표와 천정배 원장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광형 이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 국토교통부 신고통개발과 박준상 과장이 참석했다.

카풀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대외협력팀 이동규 이사가 초대됐는데 불참했다.

토론회 내용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광형 이사의 발표 자료를 소개한다.



▲ 토론회 장면, 사진내 박스는 이광형 이사.

※ 현행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해결과 국민 편의 증진 방안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광형 이사)

카풀업계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특정 시간대·지역의 승차난 해소를 위해 자가용 카풀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과 국민 편의 증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현재 개인 택시 업계는 매우 열악한 영업 환경에 처해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월 평균 매출이 2017년도 기준 대략 310만원으로 운행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은 약 2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위해서 사업용 차량 무사고 경력 3년, 택시운전자격 취득, 정밀검사, 각종 제재 등 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환경과 달리 규제와 조건없이 일반 운전자의 자가용 유상운송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불법자가용 카풀의 허용은 국민 편의에 배치

카풀 운전자는 운전경력, 연령, 사고예방교육 등 아무런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사고 시 보험문제, 운전자 범죄경력 및 신원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카풀 앱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해 국민 편의 증진에 저해된다.

또한 카풀은 허울뿐인 공유경제이며 거대 자본의 이익 추구가 목적인 것이다.

일일 15시간에 가까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하게 운행하고 있는 전국 약 30만 명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일궈온 택시시장(서울개인택시의 경우, 2017년도 기준 약 1조8천억원)을 소위 ‘공유경제’를 앞세운 몇몇 거대 자본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그 시장을

빼앗으려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시장잠식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테두리를 국가의 성장 저해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 불법 자가용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

카풀은 아르바이트 역할로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을 단순 중개하는 카풀 플랫폼은 수수료를 통해 단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4차산업과는 무관하며 공유경제의 미명하에 추진되는 카풀 합법화는 안정적 일자리인 택시 종사자를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로 내모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불법 자가용 카풀이 전면 허용할 경우 전국의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택시의 수효가 줄어들 경우 일터가 부족해 일자리 창출에 역행 된다.

택시산업의 붕괴는 택시종사자들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 할 것이다.

◇ 정부와 지자체의 택시 감차사업 역행

국토교통부는 2014년 발표한 ‘제3차 택시총량계획(2015~2019년)’에 따라 전국 과잉 공급 택시 대수가 5만1264대에 달한다.

지자체별 이를 조절함에 있어 서울의 경우만 필요 감차대수가 1만1831대이며 지난 2016년 첫 서울의 감차시행 당시 1대당 감차보상금 개인택시 8,100만원, 법인택

시 5,300만원으로 총 74대(개인 50대, 법인 24대)를 감차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들여 소요된 비용만 약 56억(정보보조금 22억, 개인조합 부담금 25억6천, 법인조합 추가각출 포함 부담금 8억)이 투입됐다.

앞으로도 최종 목표 대수인 1만1천여대를 줄이려면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 금액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유로 현재 감차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택시승차난을 해결하겠다고 자가용 카풀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IT업계에서 주장하는 공유경제라는 것은 유휴자원을 여럿이 함께 사용자는 것인데 오히려 자가용 카풀을 추가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 유휴택시를 활용하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다.

◇ 개인택시부제 폐지의 필요성

택시부제는 국토부훈령으로 규제하고 있어 서울은 매일 약 1만6395대(서울 개인택시 : 4만9,236대 2018년 12월 기준)의 개인택시가 운행을 규제 받고 있다.

또한 현행 3부제로 인해 운전자는 수입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에 16~20시간 운행으로 과로 유발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재량으로 부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일부 대도시의 개인택시의 경우 33%의 공급확대가 예상돼 승차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연말 부제 해제를 통해 하루 2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추가 운행할 수 있고 부제를 폐지할 경우 사업자별로 필요한 날짜와 시간을 이용하여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사고예방효과는 물론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택시부제를 전면 폐지 또는 부분 폐지로 개선되어야 한다.

◇ 택시를 이용한 카풀 확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된 택시규모와 더불어 열악한 처우에 기사 수급이 어려워 차량이 있어도 실제 가동하지 못하는 회사 택시의 유휴는 50%에 육박하다.

개인택시는 부제로 인해 33% 이상 유휴하고 있는 만큼 택시 유휴 차량을 활용한 합승 및 동승허용 등 택시 카풀서비스를 도입해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 대의 택시의 승차거부를 해소와 택시서비스를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택시업계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순수한 목적의 카풀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업에서 카풀 ‘알선’으로 허울뿐인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을 앞세워 상업적 목적을 감추고 택시산업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편의를 저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또한 정부와 택시업계 간의 협의를 통해 택시에 관한 정책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3자인 카풀사업으로써 덮으려는 것은 탁상공론일 뿐이다.

더불어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를 통해 일반 운전자의 운행기록까지 확보해 향후 연간 180조원 규모로 성장할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면 승용차보다 교통은행이 월등히 많은 택시를 이용해 교통정보를 상호 공유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사안이다.

〈정리·전국개인택시연합회 기획부장 김도길〉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강원 개인택시조합 김주원 이사장

현재도 공급과잉인 택시를 놔두고 수백만 자가용을 길거리에 푸는 게 '카풀'이다!

택시 생존권 말할 더해 에너지 낭비·미세먼지 부작용도 유발
고급·승합택시 운행지역 완화가 오히려 대중교통 사각지대 초래
강원도 교통인단체 총연합회 초대 회장에 추대, 대화 채널 구축 모색
강원도에 희망택시·대폐차 확대 지원 요청, 조합원 수익·증대에 노력



강원개인택시조합
김주원 이사장

함께 타기 운동이 제안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승객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택시를 놔두고 공유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자가용 유상 운송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자동차 2부제 같은 극단적인 운행 제한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수백만대의 자가용이 카풀 시장에 풀려 도로를 누비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며 미세먼지를 날리도록 장려하는 것이 과연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은 현재의 택시 공급수준만으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은 서울 강남 등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으로 택시 부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획일적으로 개인택시 부제 운영을 강제화하고 있는데 승객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부제 제한을 풀어주면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을 비롯한 어느 도시에서도 택시 공급이 모자라 승객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도시의 특정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을 풀겠다고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자가용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카풀 허용을 4차 산업 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주원 이사장은 “대기업 카카오에 카풀 수요를 몰아 주기 위해 춤고 배고픈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 기사는 물론이고 전국 수많은 콜센터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라고 규정했다.

◇ 승합 택시 운행 지역 제한 풀면 형평성 무너져

국토교통부가 교통 정책에서 또 하나의 ‘악수(惡手)’를 두려 한다고 김주원 이사장은 우려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고쳐 13인승 이하 승합 택시

와 고급 택시 운행 지역을 시, 도 단위로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승합택시와 고급 택시는 사업구역 내의 시·군으로 운행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대중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고급, 승합 택시 운송에 대한 사업 구역 제한을 도 단위로 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 개인택시조합은 국토교통부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강원도를 통해서도 사업 구역 제한을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승합과 고급 택시 운행 구역 제한을 완화할 경우 가장 크게 우려되는 대목은 택시 사업자간 형평이 무너진다는 점을 꼽고 있다.

현행 택시 사업 구역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현재까지 줄곧 행정 구역 단위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사업 구역이 동일한 군 단위 지역 안에서도 조합원간 암묵적 동의를 전제로 읍면 단위별로 사업 구역을 세분화시키고 상호 준수하고 있다.

고객이 몰리는 지역에 택시가 쏠려 대중교통 소외지역 고객들이 외면받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고급형이나 대형 승합택시에 한해서 시·도 단위로 운행 구역을 확대 시키는 것은 택시 사업 구역을 이원화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것이 강원 조합의 해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고급택시와 승합택시의 사업 구역을 도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합 택시 등은 시 경계를 넘어서 도내 어느 지역이라도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해지고 특정 지역에 택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 군 별로 적정 택시 수요를 산정해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고 세금을 투입해 공급량이 많은 지역의 택시 감차 까지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정부 스스로 뒤집는 결과가 초래되는 셈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도 허울 뿐이라고 김주원 이사장은 강조한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는 카지노를 찾는 고

김주원 강원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카풀 허용은 출발점부터 해결 방법까지 모두 잘못됐다고 단언했다.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에서 출발한 카풀이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로 변질되면서 자가용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경우 택시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같은 산업을 수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필요가 높아졌고 그 실천 방안중 하나로 자동차

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200 여대에 달하는 타 시, 도 모범택시와 렌트카, 콜밴이 불법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불법 여객 운송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반과 신고 포상금 제도 까지 운영하는데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법 운송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이 되는 카지노에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합택시와 고급택시의 운행 구역 제한을 풀게 되면 바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돈이 되는 즉 고객 수요가 보장되는 철원이나 양구, 화천 같은 지역의 군 부대 인근에서 휴가나 외출을 나오는 장병들을 태우기 위해 대형 승합택시가 몰리게 될 텐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13인승 승합 택시나 고급 택시 수요가 필요한 일반 도시 지역 승객들이 오히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강원도청이 강원 개인택시조합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대형승합차 운행 구역 제한 폐지 법안이 예고되면서 국토교통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김주원 이사장은 이어 강원도청을 찾아 의견을 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특정 택시의 운행 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택시 총량제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같은 정책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주문한 것인데 강원도청은 강원 개인택시조합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석해 국토교통부에 건의문까지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도 교통 관련 공무원들과 법령 개정 여부를 논의했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 환경에 맞게 조례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 지부 조합 사육 예산 지원 확보에도 노력

김주원 이사장은 강원도 교통인단체 총연합회의 초대 회장으로 최근 취임했다.

강원도 교통인단체 총연합회는 도내 총 16개 교통 관련 단체를 하나로 묶은 연합단체이다.

개인택시조합을 비롯해 버스, 화물, 정비, 렌트카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녹색어머니회 등 소비자 모임까지 참여시킬 정도로 교통과 관련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 채널을 만들겠다는 김주원 이사장이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니 그 무게감이 크다.

“16개 단체가 모였지만 사실 각 단체가 지향하는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운수 업계 입장에서는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며 소비자에게 유용한 교통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택시를 대표하는 이사장이라고 해서 이 모임에서 택시 현안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사업자 단체들과 자주 만나 좋은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 택시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억울한 대목은 하소연하고 뜻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원 이사장은 강원개인택시조합 산하 강릉지부장을 3차례 역임했다.

강원개인택시조합이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열린 선거에서 첫 번째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과정도 거쳤다.

강릉 지부장 3선의 경험속에서 조합원 수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체득했고 강원 조합 초대 직선제 이사장을 맡으면서 조합원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전체의 큰 이익을 대변할 수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 때문에 김주원 이사장은 매년 봄철에 도내 18개 시군 지부를 일일이 방문하며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건의를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만든다.

가을에는 각종 민원 수요가 많은 지부를 찾아 지자체 공무원들과 협의하고 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는 활동에 주력한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힘을 얻기도 한다.

지난 해, 카풀 저지와 관련한 강원 조합의 하나된 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지를 이끌어내는 활동에 주력했는데 해당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의 개인택시지부에서 김주원 이사장과의 모임을 주선하고 카풀의 부당함을 전달하는 노력들은 펼쳐졌다.

김주원 이사장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개인택시 대폐차 지원을 이끌어 내고 희망택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꼽았다.

특히 동농 복합 지역인 강원도의 특성상 승객 수요가 없는데도 노선 버스를 정기 운행하는 농촌 지역들이 많은데 희망택시를 확대하면 고령화되는 농촌 승객들의 편익은 높이고 강원도와 일선 지자체의 지원 예산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택시 수요 확대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강릉지부장을 지내던 시절, 도의 지원을 받아 회의실과 체력단련실, 샤워실, 휴게실, 콜센터 사무실을 갖춘 3층 규모의 지부 사육을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지부에서 도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개인택시 조합 사육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 신문과 인터뷰가 있던 날, 김주원



1. 김주원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국회 권성동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 강원도와 가진 간담회에서 김주원 이사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부터)과 최문순 도지사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3. 강원도 교통인단체 총연합회장으로 선출된 김주원 이사장(사진 중앙에서 오른쪽 첫 번째)이 창립 총회 기념식을 갖고 있다.
 4. 김주원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도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참석하는 모습.

이사장은 도와 군의 지원을 받아 최근 조합 김주원 이사장이 조합원들과 눈높이를 사육을 준공한 철원 개인택시지부를 방문 맞추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현장 행보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개인택시 사업자 복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글·김신)

지부
탐방

강원도 철원군 지부

자동차 정비복 입은 지부장,
조합원도 정비사!

도·군은 6억 지원, 조합은 부지 구입해 사옥 마련
정비동도 마련, 자가 정비 기술 배워 소모품 교체는 스스로~



강원도 철원군 지부
이성기 지부장

철원 지부는 지난 해 9월 총 303평의 부지위에 사옥을 준공했다.

부지는 조합에서 자가 부담한 1억5000만원으로 확보했고 조합 사옥과 정비동으로 구성된 시설물, 각종 차량 정비 장비는 도에서 2억원, 군 4억원의 지원금이 사용됐다.

철원 지부에 소속된 개인택시 조합원의 수는 77명이 불과하다.

많지 않은 개인 택시 사업자의 복지를 위한 조합 사옥 건설 예산을 군에서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성기 철원 지부장은 먼저 강원도를 설득해 사옥 건설 예산을 확보했고 이후 군청에도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이끌어 냈다.

“개인 택시 삼척 지부의 사옥 건설 과정을 모델 삼아 시작했는데 그 과정은 훨씬 어려웠습니다. 시 단위인 삼척은 철원에 비해 조합원 수가 두 배 이상 많아 예산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것으로 압니다. 강원도에서 군 단

위로 도와 군의 지원을 받아 사옥을 마련한 것은 철원지부가 처음입니다”

이성기 지부장을 인터뷰하던 날, 철원 지부의 사옥 건설 과정과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강원도 인재 개인택시지부에서 견학을 나왔다.

◇ 인건비 절감 위해 조합원들이 자가 정비

이성기 지부장은 자동차 정비복을 입는 날이 많다.

철원지부 사옥에 마련된 정비동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차량 자가 정비를 교육시키고 지원하는데 분주하다.

약 33평 규모의 정비동에는 미션·브레이크·엔진 등에서 소모되는 각종 오일 교환기부터 타이어 탈부착기, 휠 밸런스, 오일 드레인 같은 다양한 정비 기계가 갖춰져 있다.

이곳에서는 차량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지는데 눈에 띄는 대목은 조합원들이 자가 정비한다는 점이다.

“조합 사옥에 자체 정비 시설을 마련한 것은 조합원들의 정비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였는데 전문 정비사를 채용하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자가 정비 기기 작동 방법을 포함한 자가 정비 기술을 배웠고 조합원들에게도 전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조합원들도 이제는 스스로없이 각종 소모품을 자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가 정비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들은 시중 대비 약 2/3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필요할 때 마다 주문 배송 방식으로 공급받는다.



철원지부 사옥 전경



철원지부 조합원들이 정비동에서 자가 정비하는 모습.



이성기 지부장이 조합원 차량 정비를 돕고 있다.

엔진오일 등 오일류는 정비동에 비치해 조합원들이 필요한 양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자가 정비하면서 공임료도 지출되지 않으니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 줄어든 장병 운송 수요, 희망택시로 채운다

정부의 국방 병력 감축 계획이 전방 부대 위주로 진행되면서 철원 지역 사단도 후방으로 철수하면서 택시 승객 수요는 감소 추세이다.

주요 승객이 장병인데 병력 철수로 택시를 찾는 고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철원군 지부는 희망택시에서 새로운 수요를 찾

고 있다.

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 거주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철원군은 현재 6곳 정도가 적용되고 있다.

마침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버스 기사들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서 노선이 줄어드는 환경을 고려해 이성기 지부장은 희망택시 대상 지역 확대 방안을 군청과 협의중이다.

정부 보조를 받는 노선 버스 승객 수요가 적은 마을까지 고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희망 택시를 허용하면 대중 교통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공공 예산 지원은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성기 지부장은 철원 관내에 추가적으로 희망택시 보급이 가능한 마을이 10곳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까지 확대되면 고령화되고 있는 승객 분들을 집 앞까지 모시면서 공공적 운송 역할을 할 수 있고 택시 사업자들 역시 장병들이 빠져 나간 승객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원 지부는 철원군의 이미지 광고를 택시 외부 광고로 유치해 매월 3만3000원을 철원군에서 지원받고 있다.

철원군 이미지 광고 문구는 ‘기분좋다 철원’

철원 개인택시조합원들은 오늘도 기분이 좋다!

(글·김신)

www.klpg.or.kr

깨끗한 내일을 위해 부르릉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청정 에너지
더 힘찬 자동차를 만드는 파워 에너지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그린 에너지
우리에게는 LPG가 있습니다

Clean Energy, Clean Tomorrow

 **대한LPG협회**

{ 2019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

1 택시 생존권 사수결의대회 개최 등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4개 단체는 카풀 자가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러스, '럭시 등의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촉구'를 위하여 제1차(10. 04), 제2차(10. 11) 수도권 지역 "카카오(카풀) 규탄 결의대회" 개최하였으며, 10. 18에는 전국의 택시종사자 7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30만 택시종사자의 제1차 광화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와 청와대로 "가두행진"하였으며, 제2차·제3차 여의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사항

일 정	추진사항
2018. 1. 23.	○ 자가용 카풀업체 불법영업행위 근절 탄원서 서명 추진
3. 30	○ 함진규의원, "승용차 23시간 카풀제 도입 문제점 토론회" 개최
4. 11	○ 택시 업계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탄원서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청와대, 국회 등에 탄원서 건의 및 서명부 제출 - 서명 인원 : 약 33,297명 서명 받음.
5. 29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관 토론회 개최 - 김태년 정책위 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안민석의원, 정춘숙의원
8. 30	○ 카풀(자가용불법유상운송) 전면 금지 당론 채택 건의 및 면담 요청 - 5개 정당 대표(원내대표, 정책위의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국토교통위원회 조속 상정 및 심의·통과 촉구 건의 - 국토교통위원장 및 여·야 간사 3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국토교통위원회 조속 상정 및 심의·통과 촉구 건의 - 국회의장, 5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 국토교통위원장 및 여·야 간사 3인
9. 3	○ 법인연합회장, 충북이사장,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면담 -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토위 간사에 당론 채택 및 법안 통과 건의
9. 5	○ 개인연합회장, 인천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면담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 건의
9. 12	○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0)에 법안 통과 건의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통과 건의
10. 4 (11:30 ~12:30)	○ 서울·인천·경기 택시 4단체 공동 "카카오(카풀) 규탄 결의대회" 개최 - 참석인원 : 1,000 여명 - 장소 : 카카오 모빌리티 앞 인근지역
10. 11 (11:30 ~12:30)	○ 서울·인천·경기 택시 4단체 공동 "카카오(카풀) 규탄 결의대회" 개최 예정 - 참석인원 : 1,000 여명 - 장소 : 카카오 모빌리티 앞 인근지역 ○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 10. 18일 집회에 운수종사자 전원참석, 차량운행 중단 등 협의
10. 18 (14:00 ~16:40)	○ 카풀 관련 생존권사수 결의대회 개최 - 참석인원 : 7만 여명 - 장소 : 서울 광화문 광장 (북측광장 및 세종로 일원)
11. 5	○ 청와대 국민청원(카풀 반대) "동의" 댓글 달기 2차 문자메시지 전송
11. 7	○ 택시 중앙 4단체, 인천지역 4단체와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간담회
11. 8	○ 청와대 국민청원(카풀 반대) "동의" 댓글 달기 3차 문자메시지 전송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함진규의원 면담 - 경기개인택시조합이사장, 시흥·수원·남양주시조합장, 연합회 전무이사 등 참석 ○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 김정우의원 면담 - 경기조합이사장, 군포·남양주시조합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간담회 및 건의 - 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 조기 개정건의 - 강원조합 원주시 지부
11. 8	○ 제2차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및 카풀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 - 부산 18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
11. 9	○ 청와대 국민청원(카풀 반대) "동의" 댓글 달기 4차 문자메시지 전송 ○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 요청 -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11. 11	○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 면담 - 경기조합이사장, 구리시·남양주시조합장 등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 면담 - 경기조합이사장, 남양주시조합장 등 ○ 자유한국당 윤상현의원 면담 - 경기조합이사장 등
11. 12	○ 청와대 국민청원(카풀 반대) "동의" 댓글 달기 5차 문자메시지 전송 ○ 더불어민주당 권철승의원 면담 - 경기조합이사장·부이사장, 화성시조합장
11. 13	○ 청와대 국민청원(카풀 반대) "동의" 댓글 달기 감사 문자메시지 전송
11. 14	○ 택시업계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위원장, 맹성규의원, 이규희의원, 이 훈의원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 김일환 수석전문위원, 최영찬직능국장 -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서울·경기·인천이사장 등 - 전국택시연합회장, 서울·경기·인천이사장 등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울·경기·인천 지역본부장 등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울·경기·인천 지역본부장 등 -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 : 김태호의원, 장훈 전문위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보좌관 면담 - 연합회장, 경기조합이사장·부이사장 등
11. 16	○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건의 - 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 조기 개정건의 - 강원조합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지부
11. 17	○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게 건의 - 경기조합이사장, 의정부시·남양주시조합장
11. 17	○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간담회 및 건의 - 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 조기 개정건의 - 강원개인택시조합 원주시지부
11. 18	○ 국토교통위원장 간담회 - 카풀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 연합회장, 경기조합이사장, 안산시조합장
11. 21	○ 제2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 문자메시지 전송 ○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에게 건의 - 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 조기 개정건의 - 강원조합 춘천시 지부 ○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에게 건의 - 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 조기 개정건의 - 강원조합 강릉시 지부 ○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게 건의 - 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 조기 개정건의 - 강원조합 동해시·삼척시 지부
11. 22	○ 제2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 문자메시지 전송 ○ 제2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 참석인원 : 4만 명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KB 국민은행 앞)
11. 23	○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 위원장 전현희 의원과 간담회 - 연합회장, 서울·인천·경기조합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 출퇴근 카풀 및 알선 금지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 - 청원인 : 경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김영식 외 52인 - 대표 소개의원 :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건의 - 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 조기 개정건의 - 강원조합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지부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간담회 및 건의 - 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 조기 개정건의 - 강원조합 원주시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간담회 및 건의 - 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 조기 개정건의 - 강원조합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지부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면담 - 경기조합이사장, 이천시·시흥시·용인시조합장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장 문희상 면담 - 경기조합이사장·부이사장, 의정부시조합장 등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 참석인원 : 7만 명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KB 국민은행 앞)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택시 자격유지검사·적성검사 도입 관련)

국토교통부는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응하여 65세 이상의 택시 운수종사자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2018. 02. 12)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및 적성 검사 도입 ▼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만 65세 이상의 택시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운수종사자는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관련)

지난해부터 픽업트럭(5인승) 등록으로 택시업계와 화물업종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노사 4개 단체는 화물 최대 적재량이 800kg 미만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제(3인승 이하) 도입 및 적재면적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회 여·야 의원을 상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 갑) 등 11인이 화물자동차의 정의조항에 최대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적재면적과 승차 최대인원의 기준을 규정하여 여객과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8. 05. 15) 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정	추진 사항
2018.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최대 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화물의 기준 및 대상 차량에 포함.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0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업연간의 이해관계 조정 외에 수요자 관점에서 다양한 규제대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비용 편익이 필요하므로 “계속심사”로 의결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통과 건의 -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10인)
1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통과 건의 -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10인)에게 정기국회 통과 건의

4 고급형·승합대형택시 사업구역 관련 건의

국토교통부는 고급, 승합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7. 12. 06) 하여, 공포(18. 02. 12)하였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합, 고급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기존 시·군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

연합회는 고급형, 승합대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기존 시·군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에 따라 택시의 집중화 현상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추진하였음.

일정	주요 내용
2018.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고급형·승합대형택시의 도단위 지역은 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건의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고급형·승합대형택시의 도단위 지역은 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건의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고급형·승합대형택시의 사업구역 광역화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고급형·승합대형택시의 도단위 지역은 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건의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택시업계 현안문제 송부 시 건의

5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 공포 (간이과세자 면제기준 상향조정)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과 향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천 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2018.12.31.)하였다.

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계속 지급

연합회는 택시가 국내의 경기침체, 고유가 및 택시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정부는 물가안정 우선정책 추진으로 택시의 운임 및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이 계속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이에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는 「여객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을 고시(2018.12.28.)하였다.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개별소비세 감면)

연합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연료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및 연료 부담 등이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 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하였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차량 취득세 감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보건·안전 분야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건의함.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을 공포하였다.

연합회 NEWS

연합회 박권수 회장, 윤관석 의원 만나 카풀 저지 협조 요청

정부 불법 카풀 허용하면 택시 벼랑에 내몰려
분신 등 극단적 선택 내몰리는 상황 재발 안돼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은 정부의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겸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장을 면담했다.

박권수 회장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관석 의원을 면담하고 대기업 카카오 카풀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세 택시 사업자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박권수 회장은 “정부가 불법 카풀 허용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분신,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다.



▲ 박권수 회장(사진 오른쪽)이 윤관석 의원에게 카카오 카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조합 NEWS

인천조합 김승일 이사장, 카풀 반대 여의도 천막 농성



▲ 김승일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 유지 받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 다짐

인천조합 김승일 이사장이 여의도 국회의원당앞에 마련된 고 임정남 열사 분향소 옆 천막 농성장에서 카풀 반대 투쟁을 벌였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지난 1월 10일 분신 사망한 고 임정남 열사님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또한 분향소 옆에 천막 농성장도 설치해 정부의 카카오 카풀 허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조합 김승일 이사장은 천막농성장을 찾아 카풀 반대 농성에 참여했다.

김승일 이사장은 “정부가 대기업인 카카오에 카풀을 허용하며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려는 위기감이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을 분신으로 내몰았다”며 카풀 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 두 분 열사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합 제공〉



▲ 송갑석의원에게 여객운수사업법 81조1항1호의 예외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이길로 이사장



▲ 이길로 이사장이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조합 이길로 이사장, 카풀 반대 관련 송갑석 의원 간담회 및 캠페인

2018.12.15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신 송갑석 국회의원이 광주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하여 이길로 이사장 및 50여명의 조합원들과 카풀 반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길로 이사장은 “카풀은 불법이며 반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1항1호의 예외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몇몇 조합원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송갑석의원은 “카풀영업은 불법이 명백하고 잘못된 법은 반드시 삭제 될 수 있도록 여당과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발언했다.

간담회 종료 후 이길로 이사장 및 조합

원은 유스퀘어터미널, 공항, 송정역 등 조합원들이 있는 현장에 나가 카풀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주었다.

〈광주조합 제공〉

경기조합 김영식 이사장, 문희상 국회의장과 공관에서 간담회

카풀 문제점 공유 (알선 조문 삭제, 자가용 불법 카풀 정책 철회 등 요청)
고 임정남 열사 분향소 참배, 불법 카풀 정책 철회도 호소



▲ 김영식 이사장 (사진 중앙 오른쪽)이 문희상 의장(가운데)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조합 김영식 이사장은 지난 해 12월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소재한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카풀 및 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식 이사장은 택시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항1호 삭제 및 카풀 알선 조문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택시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요구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영식 이사장은 1월 13일 여의



▲ 김영식 이사장이 분향소 앞에서 불법카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마련된 고 임정남 열사의 분향소에 조문했다. 분향을 마친 후 함께한 경기도 지역 조합장 및 분향객에게 불법 카풀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처럼 정부와 카카오는 아무런 후속대책 없이 시행하려 해 논란만 키운 것이다. 그럼으로서 택시 종사자들의 충격과 혼

란은 훨씬 컸다. 정부와 카카오는 승차 거부, 불친절 등 택시의 부정적인 모습만 집중·부각함으로써 언론을 통한 ‘택시죽이기’에만 몰두했다”고 성토했 후 유명을 달리한 고 임정남 열사의 명복을 빌고, “정부가 불법 카풀을 철회해 더 이상 무고한 택시 산업 종사자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조합 제공>

강원조합 김주원 이사장, 고 임정남 열사 분향소 찾아 명복 빌어



▲ 김주원 이사장이 강원지역 지부장들과 함께 고 임정남 열사 분향소 앞에서 불법 카풀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회견 통해 불법 카풀 강행 백지화 요구
유지 받들어 카풀 허용 반드시 막아야

강원조합 김주원 이사장은 13일 국회의사당 인근에 설치된 고 임정남 열사의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위로하고 정부의 카풀 백지화를 요구했다. 고 임정남 열사는 불법 카풀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택시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분신, 그 다음날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김주원 이사장은 경기도 개인택시 사업자였던 고 임정남 열사의 분향소를 찾아 명복을 빌었고 정부와 국회

를 향해 불법 카풀 강행으로 더 이상 무고한 택시 사업자들이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김주원 이사장은 “같은 동료 사업자인 임정남 열사님이 정부의 불법 카풀을 저지하기 위해 16만 개인택시 조합원을 대신해 목숨을 버리신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열사님이 남긴 유지를 받들어 카풀 허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조합 제공>

안내 : 전국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순번을 정해 여의도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에서 호소문 낭독과 시위를 진행중입니다.
연합회 신문 편집 마감 시한인 13일 이후 농성장 시위가 진행된 조합 이사장 동정은 다음 호에 소개할 예정이니 사진과 기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 }

◎세입

항 목	2019년 예산
세 입	2,030,817,600
· 회비	1,679,817,600
· 이월금	350,000,000
· 기타수입	1,000,000

◎세출

항 목	2019년 예산
세 출	2,030,817,600
1. 사무비	1,151,884,200
· 인건비	777,850,600
· 급료	360,231,600
· 상여금	215,012,400
· 수당	202,606,600
· 물건비	374,033,600
· 여비	4,680,000
· 공공요금	12,648,000
· 제세공과금	5,090,000
· 차량유지비	42,720,000
· 수용비	22,300,000
· 수수료 수선비	6,660,000
· 시설관리유지비	46,200,000
· 복리후생비	233,735,600

2. 사업비	733,570,000
· 물건비	234,920,000
· 여비	50,900,000
· 수용비	128,020,000
· 광고선전비	56,000,000
· 판공비	211,200,000
· 기관운영판공비	54,000,000
· 특별판공비	85,200,000
· 홍보활동비	72,000,000
· 이용료	30,000,000
· 수수료	30,000,000
· 선진화지원비	257,450,000
· 회의비	166,550,000
· 사회복지비	10,000,000
· 포상비	80,900,000
3.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구입비	25,000,000
4. 분담금	3,600,000
· 분담금	3,600,000
· 단체회비분담금	3,600,000
· 신고포상금 분담금	-
5. 적립금	80,000,000
· 적립금	80,000,000
· 퇴직적립금	80,000,000
6. 예비비	36,763,400
· 예비비	36,763,400
· 예비비	36,763,400

공제경쟁력을 말하다

공제조합 전담지부장제 시행

공제조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삼자 정립의 원칙 및 사업자배제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며 도입을 촉구해온 전담지부장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공제조합은 지난 2018년 12월 13일 제2

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담지부장제를 의결하면서, 공제조합 각 지부장을 시도조합 이사장에서 공제조합의 2급 이상 직원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규정 등을 통과시켰다.

한편 시도사업조합이사장들은 공제운

영에 대한 자문 및 계약활동을 위하여 각 지부 공제조합의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어 공제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공제조합은 이번 전담지부장제 도입을 통해 공제조합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더 확실히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독립법인인 렌트카공제조합을 제외하고 현재 전담지부장제를 도입한 공제조합은 화물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시행준비중)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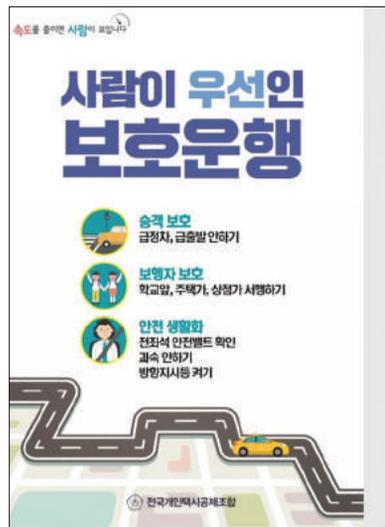
〈글·공제조합〉

사고예방 활동 강조 포스터 제작 배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증가하는 사상자 수 및 사고 건수 증가를 해소하고 사고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전지부에 사고예방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였다.

매년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사고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순히 지부에서만 하는 활동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통일된 이미지 전달 위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였다.

사상자 줄이기는 “사람이 우선인 보호운행”을 전면 문구로 하여 승객 보호, 보행자보호, 안전생활화를 중심으로 제작하였으며, 사고율 줄이기 포스터는 “사고없는 개인택시”를 전면 문구로 안전운전과 무사고를 강조하였다.



2019년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사고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사상자 감소에 온 힘을 기울여야겠다.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을 아십니까?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회전을 통하여 가려는 진행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전 교차로의 진행방법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회전교차로 안에 정지선이 없으며 회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진입하는 차량이 방해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합니다.

회전교차로와 비슷한 로타리를 만나면 위 사항이 정반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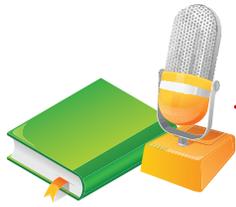
회전교차로 내 사이 사이에 정지선이 있고 때에 따라선 신호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타리는 진입차량이 우선으로 진입차량 노면엔 주의 또는 천천히를



표시하며 회전차량은 양보 또는 우선멈춤등을 표시 합니다.

즉,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회전교차로 안에 정지선이 있는지 여부와 주의, 양보, 우선멈춤등의 표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데스크칼럼

카풀의 순기능을 왜곡하지 말라!

자가용 빈자리의 나눔이 아닌 유상 운송은 공유 아닌 약탈이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해 스스로를 불태우며 희생한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이 남긴 유서에는 세상과 정부에서 외면했던 이야기들이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다.

70~80년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같은 방향을 향하는 이웃끼리 자동차를 공유하는 취지의 순수한 카풀이 대기업 카카오로 인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순도 지적하고 있다.

사실 택시 업계와 근로자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카풀 반대 집회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과 모순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언론 등에서는 크게 귀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택시의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를 부각시켰고 택시 요금 인상을 문제 삼으며 카풀이 필요하다는 여론 확산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의 분신 사망으로 이제야 택시 업계의 목소리에 조금 주목하고 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정치인 다운 모습이다.

목놓아 말해도 들어 주지 않는 정부와 국회, 언론, 대기업 카카오에게 '우리 택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 봐 달라'며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은 분신을 선택했고 이들의 시선은 이제야 택시 업계를 향하고 있다.

자기 몸을 스스로 불태우는 '분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러운가?

그럼에도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을 하게 된다는 살아서의 목소리가 외면당했고 생존의 절박함이 무시당했던 고통이 그만큼 컸기 때문인 듯 하여 더 가슴 아프다.

◇ 택시 수입 불균형, 탄력적 배차로도 해결

정부는 카카오 카풀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출퇴근 시간대의 택시 수입 불균형을 꼽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같은 허울 좋은 포장을 씌워 불법적인 자가용 유상 운송을 허용하자고 역지를 부리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ICT)에 있으며 전국 30만여대의 모든 택시는 다양한 콜 시스템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ICT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

또한 승객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부제 운행 제한을 풀거나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것 만으로도 수입 불균형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4차 산업혁명이나 공유경제 같은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워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은 힘없고 소외된 전국 100만 택시 가족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카카오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12월 20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

의 대회'에는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해 택시 업계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지지했다.

한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의 중개 사업 진출로 부동산이 망하고 있고 대리운전 업계가 힘들어 졌으며 이제는 택시 업계 차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대기업 포털 사업자가 소상공업이나 카풀 중개 사업까지 진출해 장악하려는 것은 공유경제가 아닌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약탈경제'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안부터 논의하시고 통과시키라! 그렇지 않다면 전부 위선이고 포퓰리즘이다.

◇ 빈 자리 나눔이 아닌 불법운송행위로 택시 수입 약탈

'공유(共有)'는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경로가 같은 동행자끼리 자가용의 빈 자리를 나눠 갖는 것이 공유 승차의 본래 취지이다.

그런데 자가용의 빈 자리를 제공하는 댓가로 유상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와 카카오가 내세우는 공유이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자가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것이 어떻게 공유운송이고 공유경제일 수 있는가?

택시 사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가용 운전자의 지갑에 채워주는 약탈경제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 임정남 열사님은 '대기업 카카오가 택시 콜비를 챙기고 대리기사 수수료 20%도 착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유언에서 호소하고 있다.

고 최우기 열사님은 '장시간 근무하고도 적절한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택시 업계의 특수한 환경이 이같은 문제를 만들었다'는 말도 남겼다.

◇ 두 분 열사님의 당부는 택시업계에 내리는 지상명령

택시 업계의 자정 노력에 더해 전국 30만 여 택시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수를 받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준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운송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 임정남 열사님은 '택시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다.

고 최우기 열사님은 '카풀이 무산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유서의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두 분 열사님의 외침과 당부는 남겨진 사람의 엄중한 몫이자 명령이다.

4차 산업 혁명이나 공유경제라는 왜곡된 구호로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허용하고 대기업 카카오의 배를 채워 주려는 그릇된 시도를 멈추기를 바라며 고 임정남·최우기 열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글·전국개인택시연합회
김도길 기획부장

기대 이상의 놀라운 변화 쏘나타 뉴 라이즈-택시



혁신적인 스타일 개선

완전히 달라진 외장과 고급감이 개선된 내장 디자인



캐스캐이딩 그릴 & 세로형 LED DRL 편의를 고려한 인간공학적 설계

신규 편의사양 확대

택시 운전자와 탑승객을 고려한 편의사양 확대



8인치 내비게이션(폰 커넥티비티) 듀얼 풀오토 에어컨(공기 청정 모드)

최고 연비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

新 변속기 적용으로 중형택시 최고 연비 확보



2세대 6단 자동변속기 혁신적인 차체강성